

- … 본회가 주최한 제 107 …○
- … 회 발명 교실이 지 …○
- … 난 1월 9일 발명장 …○
- … 러관 연구실에서 개 …○
- … 칩됐다. 매월 둘째 …○
- … 토요일 오후 1시 30 …○
- … 분에 개최되는 발명 …○
- … 교실은 이 달에도 …○
- … 1백여 명이 참석하 …○
- … 여 성황을 이루었다. …○
- … 이날 발명교실에서 …○
- … 는 코우드 전자 주 …○
- … 식회사대표 정중석 …○



인공지능 정수기 발명가

코우드 전자(주) 정중석 사장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바탕으로 발명재단의 설립까지 꿈꾸고 있는 정중석 대표. 그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어느 성경구절을 떠올리며 오늘도 열심히 발명에 힘을 쏟고 있다.

그가 발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여년이 넘었다. 그의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아버님께서도 발명으로 시작해서 발명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 모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명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찾아다닌 어찌면 무모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가 정수기와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약 15년 전쯤이다. 수입을 해온 정수기를 시장에 내다 팔고자 했으나 그 당시만 해도 현재와 같이 산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어서 서울시민들은 한강의 수도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았기 때문에 정수기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후 “86아시안게임”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로 인한 한강물의 오염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당시에도 정사장은 외국에서 정수기에 관한 각종필터를 수입내지는

모방제조하여 판매하였지만, 어느날 자기집에 설치된 정수기의 물을 마시다가 좀 꺼림직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정수기안에는 물은 항상 기존의 물과 새로 붓는물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균에 번식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 내지는 교환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시켜보고자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정수기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생산된 세계각국의 정수기는 물을 정수하는 방법이나 필터의 개발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다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씨의 성공사례 발표 ...○
- ... 에 이어 황종환 변 ...○
- ... 리사의 「산업 재산 ...○
- ... 권제도」에 대한 강 ...○
- ... 의에 이어 김관형 ...○
- ... 본회 상근이사의 「 ...○
- ... 발명의 창출과 사업」 ...○
- ... 에 대한 강의와 토 ...○
- ... 론이 있었다. 발명가 ...○
- ... 의 성공사례를 간추 ...○
- ... 려 소개한다. <이두 ...○
- ... 성 기> ...○



수 정수기의 정수 능력 자체는 매우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수기가 마치 유행을 타는 물건이나 패션옷처럼 생각하고 있는것이 국내 정수기 업계의 현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았다. 산업의 발달과 환경오염은 비례하기 때문에 정수기의 필요성은 산업이 발달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신념으로 연구에 몰두하여 만든 정수기는 보사부, 소비자연맹 등에서 정수기 수질에 대한 수심차별 조사결과 다른 항목은 비교적 우수한 성적이었으나 세균번식의 문제가 발생이었다. 10,000/1-mm 필터 기공으로 물속에 함유된 미네랄, 산소 그리고 방사능까지도 제거한다는 역삼투 정수기도 많은 세균이 증식되어 있다하여 불신을 가중시켰다. 연구의 주안점을 그래서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생수”의 기본개념은 물속에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용존산소가 풍부하며, 각종 세균 및 염소 등 중금속이 없는 깨끗한 물을 “생수”라고 한다. 그러나 생수는 가격이 비싼 탓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아껴 먹을려고 하다보니 수도 물과는 달라서 염소 등과 같은 화학물질로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면 엄청난 세균이 증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사부 당국이나 생수업자간의 마찰은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등을 바탕으로 그는 86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수기를 토대로 연구를 시작한 결과 시중에 시판되는 정수기에는 부착되어 있지않은 “관리시스템”과 “세척시스템”을 발명하였다.

관리시스템은 물이 고여있지 않게 순환시키는 장치이고,

세척시스템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가을엔 2일에 한번 여름엔 1일에 한번 그리고 겨울엔 3일에 한번씩 필터를 자동 세척하는 장치였다.

참으로 큰 발명이었다. 정수부터 세척 그리고 공급까지 전기능을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데 성공을 거둔 것이다. 위 2가지 시스템의 개발로 사람이 일일이 해야하는 번거롭고, 귀찮고, 잊기쉬운 일들을 정수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 된 것이다.

그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진리와 함께 오늘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해가 바뀐 새해의 벽찬 포부를 이제는 발명재단의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펴고 있다. 계유년 새해에도 신선한 발명이 계속 탄생하길 기대해 보자. ♣